

新지역정책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김 용 응 | 충남발전연구원장

신 지역정책은 MB정부 출범이후 참여정부와 차별화를 위해 제시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이다. 즉 과거의 지역정책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지역 간 균등발전전략이라 규정짓고, 집중과 선택 및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채택한 것이다.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드는 신 지역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다양한 시책과 사업의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그동안 방만하게 추진해온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실태를 재점검하여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전국에서는 분당 신도시의 30배에 가까운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대규모 경제자유구역 조성 사업이 6개나 추진되고 있고, 추가로 인구 50만 규모의 세종시, 10개의 혁신도시와 6개의 기업도시 건설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광역경제권 및 초 광역개발권 육성 등 수많은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대규모 지역개발시책과 사업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백만 명에 달하는 도시개발 수요와 수백 조원의 정부 및 민간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그동안 개발수요와 투자부족으로 대부분의 대규모 개발사업들은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부진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자원낭비, 경제적 비효율과 함께 정책의 신뢰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 지금이라도 대규모 개발 사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투자의

실효성을 거두는 데 치중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정부가 제시한 공간발전전략도 재검토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신 지역정책은 그동안 행정구역단위의 분산적이고 중복적인 시책 추진 및 투자 사업으로 발생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공간 전략의 일환으로 광역경제권 육성 전략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7개의 광역경제권 육성 외에도 5개의 초 광역개발권과 163개의 기초생활권 육성을, 최근에는 대도시권 육성 및 KTX 경제권 육성 등 추가 전략까지 논의되고 있어 공간전략 간의 중복과 경합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공간발전전략이란 동원가능한 자원의 한계 속에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여러 개의 공간전략을 제시하면 한정된 자원의 분산투자가 불가피하여 결과적으로 해결하려던 비효율적인 균등발전을 자초하게 되는 셈이다.

끝으로 정부의 지역발전지원 방식도 재점검하여 지역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지역발전정책은 특정 산업 육성, 선도 인프라사업 및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 등 한정된 부문에 대한 직접 지원에 치중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직접지원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행정체계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선택과 집중, 경제적 효율성을 통한 경쟁력 있는 광역단위 경제기반을 구축한다는 신 지역정책 목적의 효율적 실현을 위해서는 특정부문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방식의 한계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공동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광역경제권 육성 정책과 전략의 취지를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용하여 다양한 지역발전시책과 사업추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도록 보다 많은 예산 및 정책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정부의 광역경제권 육성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행정이 별도로 추진되다 보면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뜻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신 지역정책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육성 및 제도적 기반 구축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지역발전정책은 장기적인 대규모 사업의 추진이나 화려한 장밋빛 청사진, 혹은 현학적인 거대 담론의 허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정책의 새로운 전환을 통해 지역경제 현장의 의미 있는 변화와 개선을 가져오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

[충정투데이 2010-03-11]